

비해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접속하는 ‘놀이공원’이 되어야 하거든.

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회원 등록을 하면 회원들과 기업, 회원과 회원 간의 연결고리(connection)를 만드는 다양한 행사를 하 더군. 장소를 바꿔가며 수시로 클럽파티를 여는데, 입장할 때 “저 무신사 회원이에요!”라고 외치게 해서 소속감을 심어주 지. 또한 출발이 남성 타깃이다 보니 스타크래프트 대회도 하 고, 축구게임 위닝일레븐 대회를 열기도 했어. 무신사 비즈니스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, 이런 게 커뮤니티 구성의 문법이야.

한편, 회원들 말고 입점 브랜드와의 연결성도 강화하고자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. 패션 스타트업들을 위한 공유오피스인 ‘무신사 스튜디오’, 팝업스토어나 쇼케이스를 열 수 있는 ‘무신사 테라스’ 등이 그런 용도로 지어졌다지.

인류의 4대 문명은 큰 강을 끼고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잖아. 조그만 마을도 마찬가지로. 실개천에서 먹을 물도 길어가고 빨래도 하고 먹도 감으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 맺기가 시작돼. 그렇게 유대감을 쌓아가며 커뮤니티가 동네가 되고, 시장도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?

‘옷 잘 입는 법’에 대한 풍성한 콘텐츠(contents)를 제공하고, 회원고객 및 입점고객 간의 커넥션(connection)을 만들어 알짜배기 커뮤니티(communitiy)를 형성하고 부지런히 업데이트하는 무신사, 배울 점이 무지하게 많아.